

지지율 담보에, 혁신위 빈손 종료...국힘 위기감 고조

지도부 책임론 고개... 오늘 최고위원회의 혁신안 수용 여부 촉각 싸늘한 민심에 서울 6곳만 우세, 총선 판세 분석까지 나와 시끌

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위원회까지 띄웠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선 이후 '김포 서울 편입'이나 공매도 금지 등 굵직한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도 했지만, 여론을 향한 싸늘한 민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지율이 30%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선 참패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론 지지율이 거의 반등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까지 공개되면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이에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비주류 인사들은 10일 기득권인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주류 희생' 요구를 외면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싸늘히 식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받고도 시간을 허비했다"며 "김기현 대표가 조속히 혁신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주류 희생'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메시지를 발신할지 시선이 쏠린다. 그간 혁신위 활동을 종합한 최종 보고가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류 희생을 포함한 혁신

신위 안건을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만일 기존 입장만 반복한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이번에도 희생 요구를 모른 척하거나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류 측은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는 김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예고하고, 예산안 논의도 끝났는데 주장이 물러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류 희생' 수용 여부와 별개로 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 등에 강력한 경고음을 발신하면서 그간 지나치게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되돌리는 시도로 분위가 반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을 잠겨있다. /연합뉴스

尹 "ASML 방문,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중요 전환점"

오늘 출국 앞두고 AFP 통신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국민 방문차 출국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미국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네덜란드의 ASML과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같은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사용을 차단하고 관련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 대통령은 11일~15일 네덜란드 국민 방문 기간에 ASML 본사

를 방문한다.

특히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내년엔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ASML 방문에는 빌람-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피터 베닝스 ASML 최고경영자(CEO) 등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 장비 기업들을 대거 보유, 총출력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춘 네덜란드와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산업·기술·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산업이 미국과 중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네덜란드 방문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 3법 결국 폐기

국회 표결 찬 175·반 115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다시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표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 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날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한편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국힘 "공관위 구성,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

김건희 여사 특검 연계설 일축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특검법 등 원내 상향으로 인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 공천 검토를 진행할 공관위 출범을 늦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도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기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경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재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공관위 구성도 늦추고 총선 준비를 모두 늦춘다?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